



 <a href="http://csf.kiep.go.kr/">http://csf.kiep.go.kr/</a>	「이슈&트렌드」
2018. 09. 01	2018년 8월 위안화 급반등, 중국의 입장과 외신 반응
	작성   KIEP 북경사무소


- 최근 달러화 강세, 중미 무역분쟁 및 국제 환율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위안화 가치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8월 27일 하루만에 1.28% 상승하며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8월 15일 위안화 가치는 최저점인 6.9580위안까지 절하되었고 이후 계속 하락하는 변동성을 보이다가, 8월 27일 6.9위안 근처에서 0.1위안 가량 급반등하여 6.7843까지 폭등(8월 최고 수준)
  - 이는 2016년 12월 말과 2017년 1월 초에 3일간 발생한 위안화 급반등 추세와 유사
  
- 이러한 위안화 가치의 급반등에 대하여 중국 외환관리국은 세밀한 관리와 역주기인자(Counter Cyclical Factor, 逆周期因子)의 재도입 때문이라고 발표함.
  - 8월 3일, 인민은행은 외환위기준비금 비율을 0에서 20%로 증대시킨다고 발표했으며 이와 유사하게 세 차례나 외환시장 반전을 위한 조정을 시도했다고 밝힘.
  - 8월 24일에는 중국외환거래센터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에 역주기인자를 재적용하여 위안화 환율을 다시 균형상태로 되돌리고 안정적인 기조를 찾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위안화의 지속적인 절하는 자체적인 경제구조와 시장 상황에 따라 발생한 순주기적인 결과로 판단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위와 같은 관리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
    - 2018년 초부터 계속된 달러화 강세와 최근의 미 무역마찰로 인한 것임을 지칭
  
- 이번 위안화 급반등과 중국 외환관리국 및 인민은행의 정책 변화에 대해 주요 외신들의 평가는 미국에 대한 평화적 제스처, 냉각되는 경제 분위기에 따른 자본유출 방지, 장기적인 통화정책의 일환 등으로 상이
  - 일본 Mizuho Bank는 역주기인자를 통한 조정은 위안화 환율의 직접적인 방향성을 내포하지 않으며 사실상 다른 통화들에 대한 상대적 안정성을 지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평가함.
  - 뉴욕타임즈는 10주간 계속되며 백악관을 짜증나게 했던 연속적인 위안화 절하가 드디어 끝을 보인다고 로이터 자료를 근거로 보도하면서, 인민은행의 이번 조정은 냉각되는 경제 분위기에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자본유출을 더 이상 주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추정된다고 밝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위안화 절하 전략은 교묘한 조작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싱가포르의 Commerzbank의 분석가 Zhou Hao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무역전쟁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위안화 절상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이는 장기적인 통화정책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블룸버그의 아시아 지역 중국 헤드라인은 중국이 통화 유동성과 통화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잡기위해 야심찬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는 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보이지만 중국의 경제 둔화가 기대 이상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7이하에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표 1. 최근 위안화 급반등 관련 주요 사건

일정	내용
2018년 6월	미국의 중국제품 관세부여에 따른 중국의 미국제품 보복관세부여로 무역전쟁 발발
2018년 6월	미국의 달러강세와 무역전쟁 발발에 따른 인민폐의 지속적인 절하 추세
2018년 8월 3일	PBOC 외환위기준비금 비율을 0에서 20%로 상향조정
2018년 8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인민폐 절하는 중국의 교묘한 조작” 발언
2018년 8월 24일	중미 무역협정 실패 / 중국외환교역중심은 인민폐 안정화를 전망
2018년 8월 27일	인민폐 1.28% 급반등으로 장 마감

자료: 언론 보도 종합

-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한 우회 전략으로 보이던 위안화 절하가 일단락되고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반등이 급진적인 절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
- 추가적인 위안화 절하는 중국 외환당국의 정책적인 장치를 통해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여전히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양국간 협상은 불분명하며 달러화 강세 역시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불확실성 존재
  - 중국내 한국 기업 및 관련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로 인하여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외환당국의 위안화 안정화 정책기조 발표 및 위안화 급반등은 희소식이 될 전망 

## 참고자료

中证网 「“逆周期因子” 稳定预期 人民币 “破7” 概率降低」, 2018-08-28

新浪财经网, 「央行重后逆周期因子稳预期 人民币 “破7” 概率降低」, 2018-08-28

Bloomberg Highlight: Asia - China headlines, 2018-08-27

CNBC China Economy 「China's new currency policy is a dovish signal in the trade war」, 2018-08-27

The New York Times 「Yuan Hits Four-Week High as China Signals Support, Revives X-Factor for Fixing」, 2018-08-27

Reuters 「China raises yuan mid-point most in 15 months, spurs dollar buying」, 2018-08-28